한·미 FTA 일지

연도	날짜	내용
2006	6.5~9	FTA 1차 협상 (워싱턴)
2007	3.8~12	8차 협상 (서울)
	4.2	**한·미 FTA 타결**
	6.16	미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6.29	**추가협상 최종타결**
	6.30	FTA 협정문 서명 (워싱턴)
2008	4.15~19	이명박-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캠프데이비드)
	6.12	정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 발표
	10.8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2009	4.22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6.16	이 대통령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11.19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 대통령과 회담 한·미 FTA 진전 협력 합의
2010	6.26	한·미정상회담 (토론토) 오바마, 한·미 FTA 새로운 논의 지시
	11.30~12.3	김종훈.커크 한·미 통상장관회의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FTA 쟁점현안 완전 타결**
2011	6.3	정부, 한·미 FTA 새 비준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9.16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0.12	미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10.21	오바마,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11.22	**한·미 FTA 비준안 국회본회의 통과**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을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22일 오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강행 처리된 뒤 본회의장 앞에서 무효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野 "전면 무효투쟁"…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

■ 거센 후폭풍… 정국 급랭

與 4년연속 날치기 가능성… 광주·전남 예산 비상

"한나라 오만 심판"… 야권 통합 논의 급물살 탈 듯

한나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이 파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야권의 통합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국 급랭**=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야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거친 책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날치기 처리'를 강조하며 장내외 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 논의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과의 공조를 통해 '촛불 집회' 등 대여 투쟁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등 여권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점거' 등 야권의 횡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회 모든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각종 현안 처리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역사가 심판할 한나라당의 폭거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 처리**=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로 내달 2일로 예정됐던 새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특별한 명분이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회 예결위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의 4년 연속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신설된 내년도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FTA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발하더라도 내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위기 상황일수록 냉철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반복됐던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통합 논의 변수**=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는 야권의 통합 논의에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등 여권의 '오만'에 맞설 야권의 '결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23일 개최되는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의 후폭풍으로 '통합 전당대회'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는 아직까지 통합까지 거리가 있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과의 통합 및 연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가 예상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도 거세지면서 통합 논의의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허찔린 야권 "한나라 의총인줄 알았는데" 허탈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공조해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22일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을 미리 알지 못해 몸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는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총으로만 알고 있었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민주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예정대로 참석함에 따라 단독 처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경호권을 발동하자 즉각 의원과 보좌진 '소집령'을 발동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성곤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던 중 소식을 듣고 본청으로 달려갔다.

손 대표는 같은 시각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급보'를 받았다. 그는 짧은 축사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것 같다. 지금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있다"며 표정이 굳어졌다. 손 대표는 직후 함께 있던 김영환·우윤근·전현희·김유정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본회의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후 3시9분에 입장했는데 불이 안 켜져서 컴컴한 상황이었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착석해 있던 것 같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위들에 막혀 저지됐으며 단상 아래서 항의하며 비준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으나 역부족을 절감해야 했다. 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루탄 국회'

단상 서성이던 김선동의원 투척 난장판

4년반 동안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아수라장 속에 통과됐다.

22일 오후 본회의장에 한 차례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고 노란 최루가루가 퍼졌다. 18대 국회는 임기 첫 해인 2008년 연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가 등장하며 '난장판 국회'를 연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루탄을 터뜨린 주인공은 민주노동당 김선동(44) 의원. 김 의원은 곧바로 바닥에 흩어진 백색 가루를 모아 정 부의장을 향해 뿌렸고, 정 부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을 비웠다.

최루 가루가 밀폐된 본회의장을 채우자 여야 의원들은 연신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본회의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은 아비규환"이라고 본회의장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오면서 "한나라당은 역사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기 전에 가방 하나를 들고 단상 주변을 한동안 서성였고, 단상에 서자마자 허리를 굽혀 최루탄 뇌관을 뽑았다는 게 본회의장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이어져 온 여·야 FTA 대치 정국에서 강성 발언을 이어왔다. 그는 이날 오전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내가 감옥갈 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최루탄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다.

고흥 태생인 김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의원으로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순천에서 민노당 국회의원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참, 여러가지도 보여주십니다